

책, 도서관, 그리고 보르헤스

장경렬

서울대 영문과 교수

아르헨티나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바벨의 도서관」이란 단편소설에서 하나의 가상적인 도서관을 상정하고 있다. 태고적부터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이 도서관에는 무한수의 서고가 평면적으로 동시에 입체적으로 펼쳐져 있으며, 각각의 서고에는 640권의 책이 진열되어 있다. 바벨의 도서관에 있는 무한수의 책들, 일견 혼돈과 단절의 세계처럼 보이는 이들 책을 지배하는 최소의 법칙이 있다면, 이는 바로 모든 책이 22자의 알파벳에 점표, 마침표, 여백을 합친 25개의 기호가 조합하여 형성한 세계라는 점이다.

소설 속의 '나'는 사서로서, 그 도서관 안에서 태어나 하나의 책을 찾아 일생을 편력하였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그 도서관에서 죽음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다. '내'가 찾아 헤매 그 책은 어떤 책인가? 이는 다름아닌 모든 책에 접근하기 위한 암호이자 완벽한 요약이 담긴 책이다. 옛날 어떤 사서의 말을 따라 이 책은 신과 유사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를 찾아 헤맸지만 결코 찾을 수 없는 책, 실제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그 책을 '나'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찾을 수 있기를, 아니 누군가가 단지 읽고 검토할 기회만이라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보르헤스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서관'을 '우주'나 '세계'와 병치시켜 놓는 경우, '책'과 '신과 유사한 책'은 각각 '우주 안의 현상'과 '그 현상을 지배하는 보편 진리'와 병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병치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자의적 해석을 통해 제시한 하나의 의미, 살아숨쉬는 은유를 질식시킨 자리에 세워놓은 하나의 임의적인 의미는 아닐까? 해답이 불가능한 의문은 새로운 의문을 유도하는 법, 보르헤스의 책과 도서관은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 「바벨의 도서관」을 드러난 기호와 숨겨진 의미라는 이분법적 해석에서 해방시킬 수는 없을까?

보르헤스의 도서관과 책을 의미 전달의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서 의미의 핵심으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바벨의 도서관」을 도서관과 책에 관한 이야기 그 자체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보르헤스의 도서관과 책이 우주와 현상, 보편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면, 이는 과연 무엇인가? 도서관은 그 자체가 우주일 수 있고, 책은 그 자체가 보편 진리를 창출해 내는 動因일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이 이분법적 경계선을 無化시키는 경우, 「바벨의 도서관」에는 전혀 새로운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보편 진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신과 유사한 책'이라는 현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편 진리라는 환상이 생길 수 있다는 역설적 논리가 가능해진다.

바꿔 말해, 책이란 단순히 외부의 현상을 수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현상을 구성하는 동시에 의미를 생성하는 주체일 수 있으며, 도서관은 외부 세계와 관계없이 책으로 인해 저절로 생성된 보편 진리라는 환상을 숨기고 있는 '미로'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르헤스가 암시하고 있듯이, '신과 유사한 책'은 도서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신과 유사한 책'과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지닌 채, 이 도서관의 서가 앞에서 책장을 뒤적이는 것 이외에 우리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책과 도서관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미증유의 힘을 지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스	2	책의 해 서울도서전 성료·외
표지인물	4	사라져가는 옛 곳관의 생생한 복원 「한국의 곳」 전 20권 완간한 김수남씨
특집	6	불교출판에도 바야흐로 새바람 분다
	7	불교학 초석 놓는 기초자료 출간 잇따른다
	8	불교 경전 번역사업 어디까지 와있나
초점	10	책으로 되묻는 5월 광주의 진정한 의미 — 이권우 증언집 취재기 연구서 등 적잖게 출판...객관화엔 어려움
서평	12	최동희 외 「한국종교사상사」 — 윤이흠 정대환 「조선조 성리학 연구」 — 한형조
	13	카르납 「과학철학입문」 — 신중섭 윌슨 「사회생물학」 — 송상용
	14	전석호 「정보사회론」 — 강태완 김홍명 「자본제시대의 사상」 — 신복룡
	15	김종철 「녹색평론선집 1」 — 박완서 김영철 「현대시론」 — 송희복
	16	김정란 「비어있는 중심」 — 진형준 이순원 「얼굴」 — 이경호
확대서평	17	심미적 이성애의 의지, 척도찾기의 현상학 — 우찬제 민음사 펴냄 '김우창전집' 전 5권
출판저제	18	“인간은 신의 후손 아닌 아수의 아들이다” 동물행동학·사회생물학의 명저 소개되며 새 인간관 제시
시론	19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치를 바란다 — 김성태 장덕균의 정치풍자집 「YS는 못말려」를 읽고
화제의 인물	20	5월의 책의 인물 '통문관 이겸로용
	21	서울 YMCA 제정 '우수만화가상' 받은 이두호씨
문학사론	22	남자 바꾸기에서 체제 바꾸기까지 — 최현희
컬러화보	24	책의 해에 치러진 최대규모 도서축제
리포트	26	“정보화사회 대비한 출판인력 양성할 때”
에세이	28	글쓰기의 혁신 이끄는 발상의 대전환 — 조동일
세계의 책	30	무솔리니의 연인 사파티·외 — 배병삼
	32	화제의 시간
	34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 / 도서음성정보서비스 / 정기구독안내